

PyeongChang 2018™



2018 평창동계올림픽 1년 앞으로 ‘하나된 열정’ 펼쳐질 평창·정선·강릉을 가다

2011년 7월 7일 0시 18분(한국시간). 전 세계의 이목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더반으로 쏠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 제123차 총회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긴장된 표정의 자크 로게 당시 IOC 위원장이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퍼~영창”. 그날로부터 벌써 5년 7개월가량 흘러 가야흐로 대회 개막일이 1년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전수영 기자





평창

해발 700m에 위치한 고원 휴양지

'한국의 알프스'로 불리는 평창에서는
개·폐회식뿐만 아니라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루지 등 대부분의 설상과
슬라이딩 경기가 펼쳐진다.



2

- 1 대관령 양떼목장의 설경
- 2 대관령 삼양목장의 동해전망대
- 3 대관령 양떼목장 움막 안에서 바라본 설경
- 4 대관령 삼양목장의 연애소설 나무와 설경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평창, 강릉, 정선 일대에서 열린다. 세 지역은 올림픽만 보러 가기엔 아까울 정도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부한 여행지다.
해발 700m 이상인 곳이 전체 면적의 60%나 되는 평창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중심지다. 어느 계절에 가도 아름답지만, 겨울이 만들어내는 평창의 풍경은 순백 그 자체다. 눈을 머금은 해풍이 선자

령(1,157m)이나 발왕산(1,458m) 등 백두대간 고봉들에 부딪혀 함박눈을 뿌려댄다. 특히 영서와 영동을 잇는 태백산맥의 관문인 대관령 고원은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한 요즘에도 시시때때로 설국을 연출한다. 한겨울 평창 땅은 환한 은빛으로 반짝이고, 하늘 역시 빠져들고 싶을 정도로 푸르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나들목을 나서면 곧바로 평창 겨울 여행의 시발점인 횡계에 들어선다. 횡계는 동계올림



3



4

픽 메인 스타디움과 올림픽 경기가 치러지는 알펜시아 리조트와 용평리조트의 등마리로는 눈 많고 바람 많은 곳이다. 올해 말께 120.7km인 원주~강릉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서울~평창은 KTX로 1시간 거리가 된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대관령 설경

요즘 평창의 인기 관광코스는 대관령이다. 대관령 고지대에는 대관령 삼양목장, 대관령 하늘목장, 대관령 양떼목장이 있다. 이 가운데 2002년부터 개방한 대관령 삼양목장은 여의도의 7.5배에 이르는 동양 최대의 목장으로 초원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겨울이면 초원은 눈밭이 된다. 목장을 운영하는 에코그린캠퍼스의 김성민 씨는 “해발 1,140m에 위치한 동해전망대는 동해와 강릉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로 겨우내 눈 덮인 설산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입구 광장에서 동해전망대까지 20여 분 만에 논스톱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의 개별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야 한다. 전망대에서 내려올 때도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람의 언덕’ ‘숲 속의 여유’ ‘사랑의 기억’ ‘초원의 산책’ ‘마음의 휴식’ 등 총 다섯 구간으로 나뉜 목책로를 따라 걸어서 내려온다.

입구 광장에서 자동차로 4.5km를 달려서 소항병산 동해전망대에 다다른다. 동해전망대는 사방이 모두 시원하게 트여 있다. 앞으로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동해와 강릉 경포호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뒤쪽으로는 목장의 아름다운 경관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산등성이를 따라 줄지어 늘어진 53개의 풍력발전기가 휘익, 휘익 날갯짓하는 모습도 이채롭다. 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중심지인 평창은 ‘한국의 알프스’라는 명성답게 눈길에 닿는 곳마다 설원이다. 대관령 삼양목장, 대관령 하늘목장, 대관령 양떼목장은 평창의 대표 관광지다.



1 알펜시아 스키점핑타워에서 바라본 스키장 2 대관령 하늘목장의 트랙터 마차는 선자령과 이어지는 하늘마루전망대까지 운행한다. 3 대관령 양떼목장에서의 건조 주기 체험 4 대관령 하늘목장 내 하늘승마장 옆에 있는 마사



서운 칼바람이 뺨을 아리게 하지만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한국의 알프스’로 불리는 이국적인 풍광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전망대에서 목책로를 따라 내려가면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와 ‘웰컴 투 동막골’ 촬영지가 나타난다. 조금 더 내려가면 영화 ‘연애소설’의 주요 배경이 된 ‘연애소설 나무’를 만날 수 있다. 설원을 이고 있는 푸른 하늘과 하얀 눈을 덮은 나무 한 그루가 너무도 잘

어울리는 이곳은 겨울 시즌이 지나면 양 방목과 함께 양말이 공연이 펼쳐지는 장소로 변신한다. 차가운 바람과 추위로 몸은 움츠러들지만 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그림 같은 풍광이 가득하고, 마음은 시나브로 푸근해진다. 대관령 삼양목장에서 2km 떨어진 대관령 하늘목장은 여의도 면적 3배에 달하는 체험목장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눈꽃 트레킹 명소인 선자령과 맞닿아 있는



1, 2 천년 세월이 깃든 전나무 숲길은 마치 속(俗)과 선(禪)을 나누는 경계처럼 느껴진다. 눈이 수북이 쌓인 설경 또한 압권이다.



3 눈이 쌓인 문학관 마당에 있는 이효석의 청동 좌상 4, 5, 6 평창 봉평의 이효석 문학관은 '이효석의 생애와 취향' '이효석의 문학세계' '이효석과 평창'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관령 하늘목장에는 목동들의 이동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너른 풍경길' '가장자리숲길' '숲속여울길' 등이 조성돼 있다. 2014년 9월 개방된 하늘목장은 자연 그대로 직접 체험하는 자연순응형 체험목장이다. 설원 승마, 비료포대 눈썰매, 양 먹이 주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트랙터 마치는 선자령과 이어진 하늘마루전망대까지 운행된다. 그냥 걷는 것도 좋지만, 트랙터 마차를 타고 바라보는 경치도 멋지다. 하늘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선자령 설경은 압권이다. 어디서든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설경은 답답한 가슴을 뽕 뚫어준다. 대관령 하늘목장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자동차로 100여km 달리면 옛 대관령휴게소 주차장이 나타난다. 선자령 트레킹의 들머리인 이곳에서 왼쪽으로 잠시 오르면 대관령 양떼목장이 보인다. 2000년 겨울부터 관람객을 받은 대관령 양떼목장은 삼양목장·하늘목장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은 편이다. 하지만 해발 850~900m의 구릉에 난 산책길을 따라 걷다 보면 원두막 모양의 움막, 눈 덮인 초지와 울타리 등이 자아내는 풍경이 절로 감탄사를 쏟아내게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릿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 이효석 소설 '메밀꽃 필 무렵' 중에서

해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경사가 완만한 산책로는 모두 1.2km 거리로 한 바퀴 둘러보는데 약 40분이 걸린다. 겨울에는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는 양떼를 만날 수 없지만, 축사에서 양들에게 건초 주기 체험을 할 수 있다. 황계에서 20여km 떨어진 월정산 전나무 숲길은 경기도 광릉의 전나무 숲, 내소사의 전나무 숲과 더불어 아름다운 숲길로 손꼽힌다. 월정사 일주문에서 금강교까지 이어지는 1km의 전나무 숲길은 사시사철 좋지만 전나무 가지 위에 커썬이 흰 눈이 쌓인 설경이 특히 아름답다. 1천700여 그루의 아름드리 전나무가 하늘을 떠받치고 서 있는 이 길은 온종일 서 있어도 좋다.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인 '도깨비' 촬영지로, 김신(공유 분)이 검은 뱀으라는 말에 울음



을 터트린 은탁(김고은 분)에게 고백하는 장소로 등장한다. 스노보드 경기가 열리는 휘닉스 스노우파크에서 7km 떨어진 이효석 문학관은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가산 이효석(1907~1942)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릿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 등의 아름다운 문장이 보석처럼 소설 곳곳에 뿌려있는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은 한국현대 단편소설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다. 소설 속에서 메밀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피는 시기는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고,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들리는 달밤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이효석 문학관은 굳이 이 시기가 아니라도 사시사철 작가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엿볼 수 있도록 독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문학관은 '이효석의 생애와 취향' '이효석의 문학세계' '동반자 작가와 구인화' '이효석과 평창'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메밀 자료전시실은 메밀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문학관 인근에는 이효석의 생가터와 효석문화마을이 있다.



병방치 스카이워크는 겨울이 제격이다.
해발 583m의 절벽 끝에서 일상의 스트레스와 답답함을
날려 보낼 수 있다.

을 감추지 못한다.

스카이워크 위쪽 병방치에서 또 다른 스틸을 만끽할 수 있는 집와이어는 계곡과 계곡 사이를 쇠줄로 연결하고 도르래를 이용해 시속 70~80km로 325.5m의 높이에서 1.1km를 활강해 생태체험학습장까지 가는 익스트림 레포츠다.

‘정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체험관광이 구절리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7.2km의 폐철로를 달리는 정선 레일바이크다. 출발지인 구절리역에는 여치 한 쌍을 형상화한 ‘여치의 꿈’이란 카페와 기차펜션이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아 철로 위를 달리는 레일바이크는 2인용과 4인용이 있는데 탑승 시간은 50분 내외로 하루 4, 5차례 운행한다.

페달을 밟아 구절리역을 빠져나오면 구절양장처럼 구불구불 돌아치는 송천계곡의 맑은 물과 기암절벽, 푸르고 싱그러운 산과 숲, 한가로운 농촌 풍경 등 정선의 비경을 천천히 감상하고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다. 평행선을 그리며 곧게 뻗은 철길과 터널,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면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하는 520m의 아리랑고개 터널이 등장한다. 백호민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주무관은 “봄이 오면 터널에는 세계 최초로 터널 내

1,2 병방치 스카이워크에서 내려다본 한반도 지형과 아름다운 풍경
3 송천과 골지천이 만나는 아우라지와 아우라지 체녀상

정선

물길 굽이돌고, 시원스럽고 장쾌한 풍경

정선의 가리왕산에서는 알파인 스키 경기가 펼쳐진다. 스카이워크를 걷고 레일바이크를 타고 정선 5일장을 구경하다 보면 정선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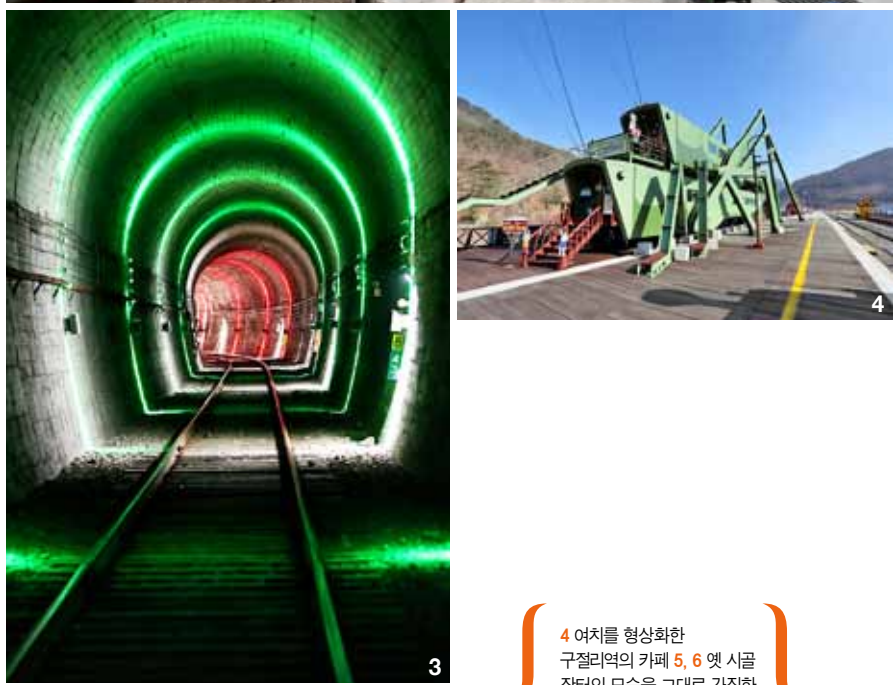
강원도 정선군 정선을 북설리의 병방산(861m)에 위치한 스카이워크. 병방치라는 고갯마루 절벽(583m) 끝에 투명 강화유리로 다리를 만들어 한반도 모양의 지형을 따라 180도 감싸 안고 흐르는 동강의 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다. 매표를 한 뒤 스크래치 방지를 위한 덧신을 신는다. 유리문을 지나 길이 11m, 폭 2m짜리 U자형 구조물에 깔아놓은 투명 강화유리 위를 조심스레 걸어가 맨 끝에 서면 한 폭의 풍경화가 펼쳐진다. 투명 강화유리 4겹은 1만여 넘는 무게를 견뎌내고 있다. 발아래 낭떠러지가 그대로 펼쳐져 있어 마치 하늘을 걷는 듯한 아찔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관광객들은 눈앞과 발아래로 펼쳐지는 풍경에 즐거움



아리랑의 고장인 정선에는 정선 5일장과 레일바이크 등 전국 최고의 명품관광지가 있다. 과거 탄광에서 캐낸 석탄을 운행하던 정선선 철로 위를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정선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1, 2, 3 정선레일바이크는 정선선 구절리역~아우라지역 간 7.2km의 폐철로를 활용한 관광상품이다. 긴 코스이지만 오르막이 없는 내리막길이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4 여치를 형상화한 구절리역의 카페 5, 6 옛 시골 장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정선 5일장

부에 디지털 벽지를 활용해 다양한 영상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빛 체험 시설을 갖추게 된다”고 말한다. 아리랑고개 터널을 통과하자 어느새 아우라지역이고, 천연기념물 제259호 민물고기 어름치를 형상화한 ‘어름치 유혹’ 카페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다시 구절리역으로 돌아가는 길은 레일바이크를 공무년에 매달고 달리는 풍경열차를 이용한다. 아우라지는 ‘정선아리랑’(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의 애정편 발상지다. 송천과 골지천이 어울려 하나가 되어 흐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돌다리를 건너면 여송정이라는 정자 앞에 처녀 동상이 서 있다. 전설에 의하면 처녀, 총각이 아우라지를 사이에 두고 살았는데 둘은

싸리골로 동백을 따러 가기로 약속했으나 긴밤에 내린 폭우로 강물이 불어 강을 건널 수 없게 됐다. 그때의 안타까운 심정이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 주게/ 싸리골 올 동박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장철 임 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라는 정선아리랑이 됐다고 한다. 정자에 올라 바라보는 아우라지의 겨울 풍경은 애뜻한 감정을 넘어 삭막하여 가슴을 저리다.

정겨움과 소박함이 오가는 5일장

정선 5일장(정선아리랑시장)은 해마다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국내 대표 전통시장이다. 한국관광공사





강릉

솔향, 문화의 향기에 커피향 그윽한 여행지

대관령을 넘어 강릉에서는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컬링 등 빙상경기가 열린다. 경기장 주변의 유명 관광지로는 경포호와 경포대,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안목해변 커피거리 등이 있다.



1 네발자전거를 탄 관광객이 경포호 풍광을 즐기고 있다.
2 아트막한 언덕에 지어진 경포대에서 바라본 경포호

여행의 자유가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 '고래 잡으러 동해로 떠난' 사람들에게 강릉의 경포대는 꿈의 여행지였다. 동계올림픽을 1년여 앞두고 있는 강릉은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다.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펼쳐지는 아이스 아레나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인근에 강릉의 대표론 화유산인 경포대와 경포호가 있다.

자연 석호인 경포호는 수면이 거울과 같이 잔잔하고 맑다고 해서 '경포'(鏡浦)라고 불리는데, 퇴적물이 만(灣)의 한쪽 입구를 막아 바다가 호수로 변했다. 지금 경포호의 둘레는 4km에 불과하지만 예전에는 12km에 달할 정도로 드넓은 호수였다고 한다. 경포호 옆에 있는 '선교장'이라는 이름에서도 지금보다 더 넓었음을 알 수 있다. 300여 년 동안 그 원형이 잘 보전된 한국 최고의 전통가옥인 선교장은 경포호수가 집 앞까지 이어져 배로 다리를 놓아 건넜다고 해서 '배다리집'으로 불렸다.

경포호 주위로는 볼거리가 쏘쏴하다. 호수 주변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로가 나 있다. 그 주변에는 다양한 조각품이 설치돼 있다. 강릉 3.1독립 만세운동기념탑이 있는 경포호 관광안내센터에서 경포해변 쪽으로 걷다 보면 고려 말 강원도 안찰사 박신과 강릉 출신 기생 홍장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는 홍장암과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조각품이 줄지어 있다. 홍장암은 경포팔경 가운데 하나인 '홍장야우(紅粧夜雨·홍장암의 밤비)'에 해당하는 바위다. 호수 한가운데 떠 있는 조암(새바위)과 누각 월파정은 짙은 안개가 끼면 그림 속 풍경처럼 아름답다.

경포호 주변에는 경포대, 해운정, 경호정, 금란정, 상영정 등 호수 풍경을 감상하기 좋은 정자가 들어서 있다. 그중 아트막한 언덕에 지어진 경포대는 경포호와 더불어 관동팔경의 으뜸 경관을 자랑한다. 고려 때 세워진 경포대는 정면 5칸 측면 5칸의 팔작지붕 구조다. 누각 안쪽에는 숙종 임금을 비롯해 시인 묵객의 현판이 걸려 있다. 강릉 12향현(鄉賢)의 한 분인 삼가(三可) 박수량은 경포대에 올라 "거

울 같은 경포호수 맑고도 깊어/ 형상은 비추어도 속마음이야/ 호수가 마음까지 비춘다면/ 경포대에 오를 사람 몇이나 될까"라고 읊었다.

옹마루 아래 '제일강산(第一江山)'이란 현판을 단 경포대 누각에는 밤하늘의 달, 바다에 비친 달, 호수에 비친 달, 술잔에 비친 달, 앞에 앉아 있는 님의 눈동자에 비친 달 등 모두 5개의 달이 뜬다고 한다. 송강 정철은 '관동별곡'에서 경포대의 달밤 풍경을 관동팔경 중 으뜸이라고 했다. 달빛이 없어도 경포대에 올라 호수를 내려다보면 마음이 잔잔해진다. 경포호에서 차로 15분 달리면 안목해변 커피거리다. 커피향이 공굴할 즈음에 경포호에서 창해로를 따라 달리는 길은 하얀 모래사장과 소나무 숲이 이어지는 해안도로다. 겨울에는 차량이 그리 많지 않아 걷기에도 좋다.

안목해변은 '커피거리'라는 명성답게 900m 정도 뻗어 있는 해안선을 따라 30여 개의 커피전문점이 늘어서 있다. 제각기 개성 넘치는 건물 외관을 뽐내는 카페들은 색다른 인테리어와 특유의 커피 제조 방법으로 여행자를 유혹한다. 카페 대부분은 바다 방향의 벽면을 통유리로 만들어 안목해변과 커피거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했다. 멋진 바다 풍경을 앞에 두고 짙은 향의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여행의 피로는 싹 가시고 행복감이 밀려온다. ▼

3 강릉항 요트마리나 건물에서 내려다본 안목해변 커피거리
4, 5 경포호 인근에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체험관 내 조형물과 빙상 경기장



INFORMATION



▶ 미리 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에는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0여 개국이 참가한다. 역대 올림픽 최대 참가국은 2014 소치올림픽의 88개국이었다.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 수도 사상 처음으로 100개를 넘긴 102개다. 각국 선수단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패밀리, 각국 올림픽위원회(NOC), 국제스포츠 관계자, 보도진 등 대회와 직접 관련한 방문객은 5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막식은 총 24만7천㎡ 규모로 평창에 들어서는 올림픽플라자 내 개·폐막식장에서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주제로 펼쳐진다. 평창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은 설상과 빙상 등 7개 경기에 15개다. 평창·정선에서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알파인 스노보드 등 설상 경기가, 강릉에서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등 빙상경기가 펼쳐진다. 대회 기간(2018년 2월 9~25일) 개최지 하루 방문객은 평균 15만 명 이상,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21일까지 수송 수요는 총 138만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 관광 정보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체험관

강릉 경포호 옆에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체험관을 찾으면 올림픽 유치부터 경기장 시설 건립 현황, 대회 준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주제전시관에는 동계스포츠 종목에 맞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 조형물이 대형을 이루고 있다. 4D체험관에서는 동계스포츠경기를 스틸 넘치게 느껴볼 수 있다. 움직이는 의자에 앉아 3D 안경을 쓰고 입체 영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며 스키점프, 봅슬레이, 스노보드 종목을 해볼 수 있다. 가상현실(VR)로 쇼트트랙이나 스키점프를 즐길 수도 있다.



알펜시아 스키점프타워

평창동계올림픽과 알펜시아의 랜드마크인 알펜시아 스키점프타워에 오르면 점프대의 스타트라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출발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25m의 다리를 건너가야만 하는데 밑을 보면 아찔하다. 점프대 앞에 서면 높기도 하지만 경사도가 워낙 커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짜릿하다. 4층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에선 동서남북 360도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하다. 스낵과 음료를 마시며 알펜시아 리조트 전경과 대관령의 설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스키점프타워까지 모노레일이 설치돼 있다.

아리랑 박물관

정선군 정선읍의 아리랑센터 내에 있는 아리랑 박물관은 1층에 127㎡ 규모의 기획전시실과 79㎡의 수장고, 2층에 307㎡의 상설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다. 박물관에는 정선아리랑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아리랑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600여 점의 소장품이 전시돼 있다. 정선아리랑 LP, 아리랑 전단지, 아리랑 잡지, 아리랑 담배와 생냥, 아리랑 스카프, 아리랑 라디오 등 서민의 애환이 담겨있는 생활소품이 눈길을 끈다.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경포호 인근의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내에는 여류문인 허난설헌(1563~1589) 생가터와 '채련곡', '규원가' 등 그의 작품과 일대기를 기록한 기념관이 있다. 생가터는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작가인 남동생 허균이 살았다고 전해진다. 스물일곱 젊은 나이에 요절한 허난설헌의 본명은 '허초희'로, 가부장적 사회에서도 남다른 인생을 살면서 1천여 편의 시를 남겼다. 생가터 옆 초당 숲속도 빼놓을 수 없는 강릉 명소다.

▶ 자연휴양림



【 평창 두타산 자연휴양림 】

두타산 자연휴양림은 강원도 평창과 정선 경계에 솟은 두타산(頭陀山, 1,394m) 자락에 위치한다. 옥수 같이 맑은 계곡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세상의 시름을 잠시 내려놓게 한다. 산림문화휴양관과 숲속의 집이 두타산의 수려한 경관과 함께 자리 잡고 있다. 자연휴양림 맨 위쪽에 위치한 숲속의 집 '물봉선'은 따로 쓰는 독채로 호젓하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두타산 정상인 칠성대로 가는 등산로와 둘레길이 잘 정비돼 있다.

【 정선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

전국 제일의 천연활엽수 지대로 유명한 가리왕산(1,561m) 남동쪽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회동계곡의 맑은 물이 주변 숲과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광을 만끽하게 해 준다. 해발 350~450m 지점에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야영장, 숲체험관이 조성돼 있다. 계곡을 따라 숲 속으로 난 산책로는 걷는 운치가 있다. 비탈진 곳에 커썬이 쌓아 올린 돌탑은 색다른 볼거리가 된다.



【 강릉 대관령 자연휴양림 】

대관령 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소나무 숲과 맑은 계곡, 바위가 어우러진 대관령 기슭에 조성된 '대한민국 1호' 자연휴양림이다. 우거진 소나무 숲과 계곡 주변으로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이 자리 잡고 있다. 통나무집 창으로 바라보는 밤하늘에는 건드리면 우수수 쏟아질 듯 하늘 가득히 별들이 빛난다. 다른 곳에는 없는 전통숯가마체험장도 있어 숯까네기와 숯가마 찜질체험을 즐길 수 있다.